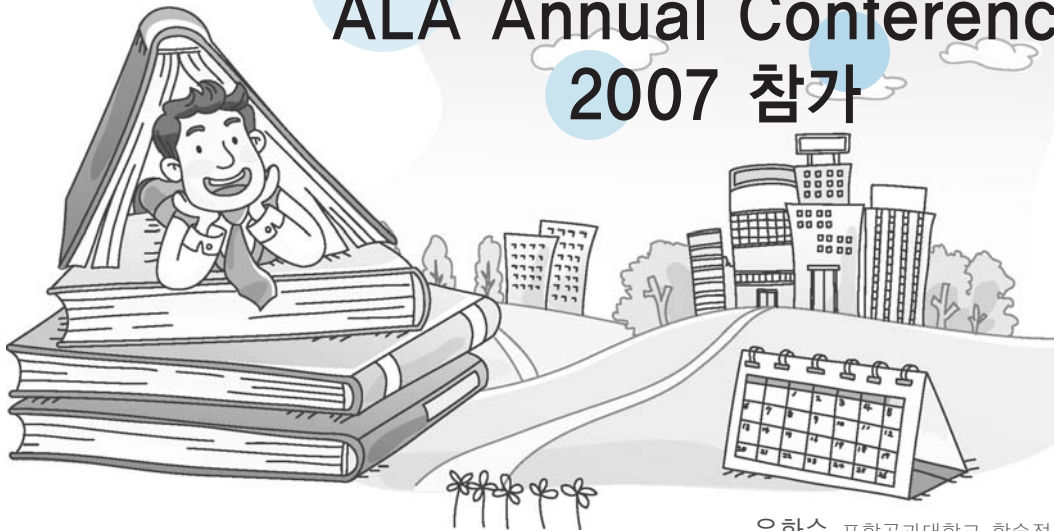


ALA Annual Conference 2007 참가



유화수_포항공과대학교 학술정보팀

STIMA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 파견자 프로그램에 선발이 된 후 어느 곳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올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즈음이었다. 연수지로는 일본과 싱가포르를 생각하고 있었고 2007년 10월 말쯤에 연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6월의 첫 날로 기억된다. STIMA의 해외연수 파견자 프로그램을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이하 ALA) Conference 2007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출장 품의를 하라는 팀장의 지시가 있었다. STIMA의 지원금 외 추가 소요 금액은 학교의 출장비 예산으로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ALA Conference 2007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 6월 21일(목)부터 27일(수)까지 미국의 Washington D. C.에 위치한 Convention Center에서 Conference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수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였으니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었다.

Conference 기간에 맞추어 연수 일정을 잡고 교내 여행사에 비행기 티켓팅을 의뢰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에서 Washington D.C.까지의 직항편 항공권이 있는 일자리는 연수 출발 예정일과 맞지 않아 구입할 수 없었고, Chicago에서 경유하여 United Airline으로 갈아

타는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었다. 출장 품의와 함께 ALA Conference 2007 행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행사 기간 동안 George Mason University의 기숙사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4월에 예약이 완료된 상태였고 Washington D.C.의 일부 등급이 낮은 호텔들 역시 예약이 이미 끝난 상태였다.

지난 2001년도에 우리 대학의 도서관 건립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 Benchmarking을 Washington D.C.로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곳의 비싼 물가를 떠올리며 다른 기관에서 ALA Conference 2007 참가자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서울의 주요 대학도서관에 연락을 하여 알아보니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만 여자 선생님 두 분이 Conference에 참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에는 숙소를 Washington D.C. 근교에 위치한 University of Maryland 근처로 예약하였고 숙소에서 행사장까지는 버스와 Metro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ALA Conference 2007 홈페이지를 통하여 ALA 회원가입도 하고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일정표를 작성하였으며 Conference 참가 업체들의 전



시부스를 조사하여 방문하고자 하는 곳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한편 Google Earth를 이용하여 예약한 숙소 주변의 지리를 살폈고 Washington D.C.의 Metro 노선도는 물론 Convention Center에서 숙소까지의 이동경로도 살펴보았다. 최종 연수 일정이 6월 20일부터 29일까지로 결정되었고 ALA Conference 2007을 참석하고 마지막 하루는 Washington D.C. 주변의 유명 도서관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가하였다.

6월 20일 12시에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Chicago의 O'Hare 공항에 도착한 것이 현지 시각으로 6월 20일(수) 오전 10:40분 이었다. 공항에서 Washington D.C.로 향하는 비행기의 발권을 하고 까다로운 입국 심사 후 O'Hare 공항의 터미널 #5에서 #1로 공항 내 궤도열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오후 2시에 United Airline(UA950편)으로 갈아타고 2시간을 날아 Washington D.C.의 Dulles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이 오후 4시였다.

수하물을 찾은 후 공항에서 버스(Airport Buyer)를 타고 West Fall church VT/UVA역에 내려 1주일 동안 무제한 Metro를 이용할 수 있는 Pass를 구입하였다. L'eanFant Plaza역에서 Green Line (Washington D.C.의 Metro는 Red, Blue, Yellow, Orange, Green Line의 5개 색깔로 노선을 구분함)으로 갈아타고 College Park Univ. of MD역에서 내렸다. Google Earth를 이용하여 컬러로 프린트된 것

과 똑같은 Metro 출구의 지붕과 주변 주차장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Google Earth가 정말 대단한 도구라는 생각을 하였다.

숙소 주변의 버스노선을 파악하고 음식점의 위치도 알아볼 목적으로 Univ. of Maryland 주변에 위치한 숙소인 RAMADA Limited college Park까지 약 45분 정도를 걸었다. 역시 Google Earth를 이용하여 숙소까지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있었고 도중에 University of Maryland 주변에서 햄버거를 구입하여 숙소에서 저녁을 해결하니 피로가 몰려와 짐을 정리하다가 이내 잠이 들었다.

모닝콜 소리에 침대에서 일어났다. Conference가 진행되는 Washington D.C.의 Convention Center로 이동을 하기 위하여 숙소를 나섰다. 버스정류장이 숙소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다행이었다. 데스크 직원에게 버스노선을 확인하는데 도로를 건널 때 매우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였다. 도로의 중앙에 자동차 넓이의 간격으로 노란색 실선 두 줄이 그어져 있었고 횡단 보도가 보이질 않았다. 자동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로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어 횡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가끔 자동차들이 진행하던 도로의 반대편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선 가운데 노란색 실선이 있는 부분에 멈춰서 방향지시등을 깜빡이기도 하였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 되었던 위험천만 한 길 건너기!!!!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숙소인 RAMADA Limited College Park〉



〈Convention Center 입구〉

86번 버스를 타고 College Park Metro까지 이동한 후 지하철을 이용하여 Green Line인 Vt. VerNon 7th 역에서 내려 Convention Center로 향하였다. Metro의 출구를 나서자 바로 Convention Center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고 별관 건물을 통과하여 본관 건물로 들어서니 ALA Conference 2007을 알리는 현수막이 눈앞에 들어왔다.

Preconference가 열리는 기간에 지하의 전시장 부스가 설치될 곳에서는 각 업체마다 부스 설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Convention Center 2층의 현장 등록 장소에서 Conference 참가 등록을 한 후 Convention Center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사진을 찍으면서 Conference Program이 발표될 방의 위치도 파악하고 Information Desk에서 여러 가지 정보자료도 수집하였다. Conference 기간 동안에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각종 정보 및 당일 행사들을 알려 주는 Cognote를 아침마다 Center 입구에서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고 Center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도 구할 수 있었다.

6월 23일(토)부터 본격적으로 Conference가 시작되어 6월 26일(화)까지 이어졌는데 Conference의 주요 내용들은 Collection Management & Technical Services, Digital Information & Technologies, User Service/Reference & Outreach, Human Resources & Staff Development, Transformation

& Innovations로 구성되었고 Library Marketing, Web 2.0, 그리고 RFID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연수 준비 기간에 도서관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듣고 싶은 프로그램을 일자별 시간별로 계획표를 만들었는데 과욕이 앞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사장이 너무 넓었고 특히 인기가 있는 주제 발표의 경우, 발표 장소에 일찍 도착하지 못하면 - 좌석을 잡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앉거나 벽에 기대어 발표 내용을 듣기 때문에 - 입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발표자가 준비한 유인물도 여분이 부족하여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Convention Center 외에 Washington D.C.에 위치한 주요 Hotel들에서도 다양한 주제의 내용들이 발표되었는데 Convention Center와 Hotel을 연결하는 Shuttle이 주기적으로 운행을 하여 참석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었다. Conference 프로그램을 듣기로 계획했던 "The Google Five Libraries : Two Years, Six Months, & Seven Days in the Life of Google Library Project"란 프로그램이 주변의 호텔에서 있었는데 참가자가 너무 많아 발표장에는 입장하지도 못하고 복도에서 서성이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특히, Web 2.0 관련 프로그램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Library 2.0에 대한 사서들의 관심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Convention Center 행사장 주변〉



〈Convention Center 내부 행사관련 전시물〉



〈전시장 내〉



세계 각국에서 ALA Conference에 처음 참가한 사람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였다. 참가자들의 명함을 유리로 된 향아리에 넣었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추첨을 하여 경품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대륙별, 지역별로 구분된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고 동아시아 지역의 테이블에서 만난 Conference 참가자들은 서울대학교 도서관(2명), National Taiwan University Library(1명), 마카오대학(Universidade De Macau) 도서관(1명), University of Colorado Health Science Center(1명) 및 ALA의 행사진행자(3명)들이었다. 마카오대학에서 참가한 梁德海(Leung Tak Hoi)는 약 10년 전에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며 반가워했다.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ALA의 전반적인 내용과 Washington D.C.의 교통편, 숙소, 음식점 및 관광명소 등을 소개하고 Conference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경품을 추첨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개막식 행사가 열린 Grand Ballroom에서는 영화 "The Sound of Music"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Julie Andrews가 참석하여 초청연설을 하였다.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며 동경하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를 직접 보면서 계속하여 카메라의 플래시를 터뜨렸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빈 좌석을 찾을 수가 없었고 좌석에 앉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서 그녀의 연설을 듣고 Julie Andrews가 출연했던 영화들을 편집한 것과 미국 내에서의 도서관과 관련한 활동들을 찍

은 영상들을 감상하였다.



〈Julie Andrews 주제 강연에 모인 참가자들〉

Convention Center 내의 업체 전시부스가 약 2,600여 개 정도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전시부스를 돌아다니다 지치면 바닥에 주저앉아 잠깐씩 휴식을 취하곤 하였다. 6월 22일 오후에는 조금 무리해서 전시부스를 살펴보았더니 다음 날까지 피로가 풀리지 않아 고생을 하였다. ALA Conference를 미리 경험했던 팀장과 동료 직원들이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내어 프로그램을 듣지 말고 전시부스도 여유롭게 살펴보라'고 당부(?)를 하던 기억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다. 특히 우리 도서관에서 사용 중인 패키지시스템인 Millennium System을 제공하는 Innovative Inc.의 부스와 우리 도서관에서 적용중인 RFID System의 Tag를 제작한 CheckPoint Inc., Library of Congress, Google, EBSCO 및 Elsevier의 전시부스 등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여러 전시부스에서 수집한 자료와 기념품들의 무게



설치된 부스)



〈컨퍼런스 첫 참가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컨퍼런스 주제 발표 장면〉

가 만만치 않았는데 지하의 전시장 내에 설치된 임시우체국에서 항공우편(\$88.40 소요)을 이용하여 사과상자 1개 정도 크기의 박스를 한국으로 우편 발송을 하였다. Conference 기간 동안 점심은 Convention Center 내에 설치된 Food Court에서 햄버거와 샌드위치로 해결을 하였고 일주일 동안 한국음식을 먹지 못하였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었다.

연수기간 동안 Conference 참석 외에 LC Library, George Mason University Library와 University of Maryland Library를 방문할 계획을 하였다. University of Maryland는 우리 대학의 前 총장인 박찬모 박사의 모교이고 George Mason University Library는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을 건립할 당시 Benchmarking을 한 곳이었으며 LC Library는 2001년도 Washington D.C.에 연수 당시 도서관 건물 앞까지 갔다가 시간이 부족하여 발길을 돌린 터라 기필코 세 곳을 모두 방문하리라 굳게 마음을 먹었다.

Preconference 기간 동안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University of Maryland의 McKeldin Library와 Library of Congress의 Thomas Jefferson Building을 돌아보았고 Conference가 끝난 후에는 Virginia주의 Fairfax시에 위치한 George Mason University의 Fenwick Library를 돌아보았다.

University of Maryland의 McKeldin Library는 중앙도서관으로 역사가 오래된 도서관이었고 Maryland주 정부의 기록물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었고 건물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여 외부에서만 사진을 찍고 Brochure를 챙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George Mason University의 Fenwick Library에서는 College Park역에서 지하철로 50분, 다시 버스로 40분을 달려 도착하였다. 버스에 올라 요금을 지불하려니 요금통에 검정색 비닐이 덮여 있어 요금을 받지 않았는데 요금함이 고장이라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Fenwick Library에 도착하여 도서관을 돌아보는 도중에 엄청난 소나기가 천둥벼락과 함께 캠퍼스에 퍼붓기 시작했고 초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다 소나마 식힐 수 있었다. 도서관 대출데스크에는 대학원생이 Part time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사서들은 각자의 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건물 내부의 벽면에는 많은 그림들이 걸려 있어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하였고 데스크마다 담당자의 명함이 놓여 있어 인상적이었다. University of Maryland의 McKeldin Library와는 달리 사진촬영을 허용하였다. 두 대학의 도서관 모두가 다양한 팸플릿과 Brochure를 도서관 요소요소에 비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나와 학생회관으로 향하는 길의 양쪽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벤치가 있었는데 세계 각국의 국기가 지역별로 벤치에 그려져 있어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Conference 막바지인 6월 26일에는 “Library Day on the Hill”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Convention Center에서 출발하는 Shuttle에 몸을 실었다. 연수 마지막 날에 George Mason University와 Library of Congress를 돌아볼 계획이었지만 여유가 없을 것 같아 계획을 수정하여 Library of Congress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프로그램이 Capitol Hill에서 예정되어 있어 미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참가자들이 하차하였다. 참가자들이 모두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Capitol Hill로 향하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빠져 나온 후, 미국회의사당 건물을 끼고 돌아 Thomas Jefferson Building에 도착하니 때 마침 투어프로그램



(Univ. of Maryland McKeldin Library 외부(측면) 출입구)



램이 시작되는 시간이었고 시간에 맞추어 입장할 수 있었다.

공항의 검색대와 비슷한 곳을 통과하니 엄청난 체격의 제복을 입은 경비근무자(?)가 소지품을 검사하였다. 드디어 내부에 들어서니 내부의 바닥과 벽에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수많은 벽화와 조형물들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도서관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박물관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미국의 전설적인 코미디언 Bob Hope의 기념관을 살펴보고 “The Cutting Edge”라는 곳을 돌아보니 여러 작가들의 최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사진촬영을 금하고 있었다. 특히, 오렌지색의 유니폼(?)을 입고 투어가이드 자원봉사를 하시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열정적인 모습은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지난 2001년도의 Washington D.C. 방문 때 LC 건물의 외부만을 돌아보고 발길을 돌리면서 아쉬워했던 마음을 풀 수 있었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열람실 내부로는 출입할 수가 없었고 방문자 코스로만 투어를 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ALA Conference에 참석을 하였다. Conference에 참석을 했던 동료들의 연수 관련 이야기와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상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Conference의 규모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ALA Conference에 참가해 봄으로써 우리 대학도서관에서의 향후 이용자 서비스 방향, 이용자들에 대한 도서관 마케팅, 기존 운영 중인 도서관 블로그의 이용자 서비스 접목 방안 및 Web 2.0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도서관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까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혼자서 갑자기 떠나게 된 연수여행 준비과정도 힘들었고 연수 후에는 보고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나의 인생에 있어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고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연수를 다녀온 후에 직장 동료들에게 전과교육을 하고 몇 개월 후에 또 다시 STIMA 총회에서 연수보고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금 당시의 기록들과 자료들을 살펴다 보니 ALA Conference를 두 번 다녀온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끼며 느낀 만큼 성장한다고 하지 않던가. 앞으로도 더 많은 회원기관들이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연수가 가능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STIMA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George Mason Univ. Fenwick Library Service Desk)



(Library of Congress Thomas Jefferson Building 내부)